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후 광산구 월곡시장을 방문해 김삼호 광산구청장과 함께 상인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이용섭, 신년벽두 ‘현장으로’

새해 맞아 광산구 월곡시장 등 방문

다양한 의견·건의 수렴...정책 반영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를 맞아 3일 전통시장과 장애인복지관을 차례로 방문해 코로나19와 한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 장애인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시장이 새해 첫날 일정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정한 것은 코로나19 등으로 고단해진 시민들의 삶을 직접 살피고 챙기겠다는 의지로 일한다.

먼저, 이 시장은 광산구에 위치한 월곡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확산과 한파 등으로 힘들어하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생필

품 구입을 통해 새해 물가를 살피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어 ‘광산구 장애인 복지관’을 찾아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를 격려하는 한편 복지관 관계자, 프로그램 이용자 및 보호자들로부터 시 장애인 정책에 바라는 점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광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최종중 발달장애인 낮활동지원실 운영 상황을 꼼꼼히 살피기도 했다.

광주시는 이번 민생현장 탐방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검토해 시의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용섭 시장은 “2022년 임인년 새해에는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기 위한 광주 대전환의 큰 그림도 그리겠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크고 작은 문제에도 더 깊은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달 28일 송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더 크고 더 강한 광주시대’를 열어 미래 100년을 대비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는 17일부터 시민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코로나19로 고통 받고있는 시민의 아픔을 덜어주고 장기간 침체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조기철 기자

## 광주시, K-POP 스타의 거리 명소화

국비 3억5천만원 확보...미디어 파사드 설치 등

광주시가 올해 국비 3억 5,000만 원을 확보해 충장로 도심 핫플레이스에 위치한 K-POP 스타골목을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도심 속 야간관광명소로 본격 탈바꿈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광주시는 청소년삶디자인센터의 협조를 받아 스타골목 내 건물 외벽에 K-POP 미디어파사드를 조성하고, 골목 내 바닥에 빔을 쏘아 빛으로 수놓는 화려하고 안전한 도보길을 만들 계획이다.

현재 K-POP 스타골목에는 제이홉 HOPE WORLD 대형 벽화와 K-POP 스타의 거리 랜드마크로 유명한 제이홉 HOPE WORLD 팬 메시지 조형물이 있으며, 선미, 청하, 스테이씨, 몬스타엑스, 에이티즈 등 50명의 K-POP 스타 핸드프린팅과 스타 애장품이 전시된 스타팬 존 등이 있다.

최근 ‘아트투이 오메나’ 조형물과 스

타 앨범자켓을 활용한 ‘아트 페인팅 벤치 존’, 투명LED 사이니지를 도입해 실감콘텐츠를 구현한 새로워진 ‘스타팬 존’ 등 콘텐츠가 제작·설치됐다.

케이(K) 댄스 신드롬을 일으킨 ‘스우파’ (스트릿 우먼 파이터) 열풍에 힘입어 올해부터는 K-POP 스타의 거리 도보코스 곳곳에 K-POP 상설무대를 운영한다.

지난해 금남로4가 지하철역사 내 K-POP BTS 팬아트 상설 전시장 스타팬존과 함께 실내 K-POP 상설무대를 조성했으며, 올해는 광주시청소년삶디자인센터 앞마당에 K-POP 야외 상설무대를 조성해 시민 누구나 끼와 흥을 발산할 수 있도록 광주만의 K-POP 스트릿 댄스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광주 출신 K-POP 가수를 테마로 BTS 팬아트 공모전, 제이홉 홀월드

스노우볼 관광기념품 제작 등 K-POP 팬들을 대상으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쳐 행사가 종료된 현재에도 팬아트 제의와 기념품 구매 문의가 이어지는 등 국내외 팬들에게 인기와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에는 K-POP 팬아트 공모전, K-POP 온오프라인 정기공연 및 팬투어 운영 등 K-POP 관광자원을 활용한 광주만의 K-POP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홍보 마케팅을 적극 펼쳐 자생적인 K-POP 문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김삼배 시 관광진흥과장은 “지난해에는 K-POP 팬아트 공모전을 통해 국내외 팬들에게 K-POP 스타의 거리를 홍보하고 팬아트 창작 우수작을 스타팬 존에 전시하는 등 민간 참여형 K-POP 관광자원 기반을 마련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객이 광주를 찾아 즐길 수 있도록 광주만의 K-POP 관광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오선우 기자

## “완전히 새로운 영암, 혁신군정 이끌겠다”

우승희 도의원, 영암군수 출마 선언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사진)이 오는 6월 지방선거 영암군수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우 의원은 3일 영암 월출산 천황봉에서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 SNS로 진행된 선언식에서 ‘젊은 변화, 혁신 영암’을 기치로 한 혁신 영암 프로젝트를 선언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국립공원박람회 ▲영암문화관광재단 설립 ▲청년공공주택단지·청년문화거리 조성 ▲청년기금·청년정책지원팀 신설 ▲청

년농업유통활동가 육성 ▲영암형 안전고용 시스템(취직사회책임제 일자리 안심공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구축 ▲100개 사회적경제 프로젝트 ▲농특산물 저장시설 확충·품목별 연구시설 전문가 육성 ▲로컬푸드 활성화·기찬농산물 판매소 설치 등을 제시했다. 또 ▲6차산업단지 조성·가공유통전문기관 설립 ▲고향사랑기금 설치 ▲생산적 복지 시스템 구축 ▲여성회관·평생교육관 설치 ▲청년주치의 제도 도입 ▲학교급식지원



센터 설치 ▲영암미래교육재단 설립 ▲300인 영암미래 인재육성 프로젝트 등도 약속했다.

우 의원은 “기득권을 과감히 혁파하고 청탁과 비

위 등 지역의 고질적인 병폐도 과감히 끊어내는 등 군민들이 주인이 되는 군민의 시대, 새로운 지방정부 시대를 열어가겠다”며 “지역소멸, 기후변화, 4차 산업혁명, 감염병 위협 등 대전환의 시대에 맞는 혁신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근산 기자

## 호등산·북호산...전남 호랑이 지명 전국 최다

“용맹 상징 신성한 영물”

전남도는 2022년 임인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지역 지명을 조사한 결과, 호랑이 관련이 총 74개로 전국(389개)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3일 밝혔다.

전남 다음으로 경북 71개, 전북 52개, 경남 51개 순이었다.

시군별로는 영암군이 산 모양이 호랑이처럼 생겼다는 뜻인 ‘호등산’을 비롯해 8개로 가장 많고 이어 여수 7개, 순천·나주·고흥·보성·신안 각 6개 등이다.

종류별로는 마을이 50개(68%)로 가장 많고, 섬 16개(22%), 고개 2개(4%) 등의 순이었다.

호랑이 지명이 많은 이유는 선조들이 호랑이가 마을을 지키고 잡귀를 물리치는데 수문장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호암’, ‘호동’, ‘호덕’, ‘호산’ 등 호랑이의 형상을 인용한 지명이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모양 관련 지명 중에 호랑이가 엮드려 있는 모습을 비유한 복자를 사용한 ‘북호’, ‘호복’, ‘복림’ 등 지명도 있다. 고흥

과역면의 ‘북호산’은 달이 지고 날이 새므로, 호랑이가 가지 못하고 엮드려 있는 형국이라는 유래가 있다.

호랑이는 예로부터 진보, 독립, 용맹을 상징하고, 잡귀를 물리친다는 신성한 영물로 여겨졌다.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의미 있는 동물이라는 이미지도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합이 넘치고 용맹스럽다고 알려진 ‘호랑이의 해’를 맞아 조기에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좋은 일만 생기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길용현 기자



정기 브리핑

## 김회재 “여수 기후위기 선도도시 대전환”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여수을·사진)의원이 ‘코로나19 극복’,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여수로의 대전환’,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2022년 주요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3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인년 새해가 우리의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면서 “이재명 후보를 도와 한국형 PPP(고정비상환 감면 대출제도)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여수시 미래비전으로 ‘기후위기 대응 선도도시 대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여수 국가산단에 들어설 ‘석유화학 촉매 실증센터’와 ‘맞춤형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지원센터’를 기반으로 여수산단이 그린 스마트 산업단으로, 여수시가 그린 스마트 도시로 대



전환될수 있도록 시민들과 지역 정치인들과 함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어 본인이 발족한 남해안·남중권을 아우르는 ‘여수 기후변화 포럼’을 확장하고, 여수시, 지역정가, 노사, 시민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노사민정 협의체’ 구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김원이 “이재명 의대신설 공약 환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목포시·사진)의원은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과 의료인력 확충 등을 담은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환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난달 31일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정책본부와 함께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공공의료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대한민국 공공의료 체제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나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전했다.

이번에 발표한 4대 공약은 ▲70개 중진료권역별 공공병원 확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 양성 ▲지역 의료기관별 진료협력체계 구축 ▲전 국민 주치의 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시도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 지역의 오랜 염원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이재명 후보 공약사항인 의대정원의 합리적 증원과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신설, 지역의 사재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공공의료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강병운 기자

전남매일 일자리 연중 캠페인

이웃이 있는 마을 따뜻한 행복동화



성공 창업에서 글로벌 기업까지!

일자리  
공유 카페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 청년창업 육성 및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 교육, 자금상담 등

창업 및  
경영컨설팅

청년창업  
허브 사업

청년의 창의적인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별 및 협업공간 지원

공방창업활성화를 위한  
공방 프로그램 운영 및  
창업공간 지원

마을공방  
운영사업



광주광역시동구  
GWANGJU DONGGU

창업지원센터가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서남로 14 동구창업지원센터

Tel : 062) 608-3991 ~ 2

Fax : 062) 608-2719